

‘광주의 핫 플레이스는?’ ... 문화예술 정보 한눈에 본다

문화재단 ‘디어 마이 광주’ 커뮤니티·아티스토어 등 문화토리 ‘플레이 광주’ ... 공연·전시·축제 등 담아

광주의 아티스트는? 이달의 문화행사는? 광주의 핫 플레이스는? 작품을 구매해볼까?

예술가와 소통하는 커뮤니티 중심의 플랫폼이 최근 잇따라 오픈해 눈길을 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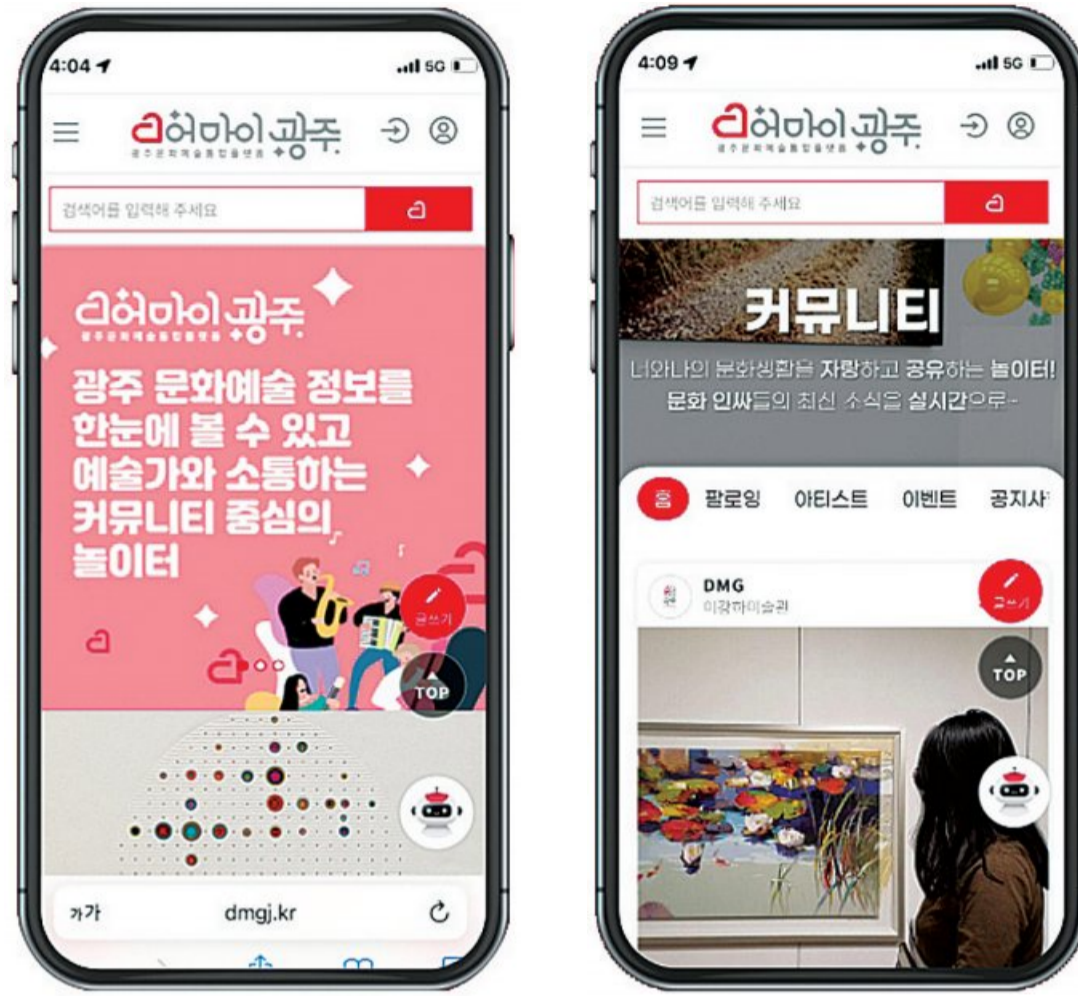
먼저 광주문화재단이 오픈한 광주문화예술 플랫폼 ‘디어 마이 광주’(Dear My Gwangju·진애하는 나의 광주)가 지난 8일 공식 오픈하고 시민들 곁으로 다가왔다.

디어 마이 광주는 문화로 소통하는 놀이터 역할을 지향한다. ‘너와나의 문화생활을 자랑하고 공유하는 놀이터! 문화 인사들의 최신 소식을 실시간으로’라는 문구처럼 누구나 콘텐츠를 쉽게 업로드하고 예술가와 직접 소통할 수 있다. 다양한 문화예술정보를 공유하고 교류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커뮤니티형 플랫폼이라는 특성에 맞게 광주에서 펼쳐지는 공연, 전시 등의 정보 외에도 예술인을 팔로잉하고 소통하며 작품 활동을 접할 수 있다. 한마디로 필요한 문화예술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다.

디어 마이 광주는 모두 6개의 메뉴로 구성돼 있다. 문화생활을 즐기고 콘텐츠를 공유하는 문화예술 놀이터 ‘커뮤니티’, 예술가의 작품을 온라인에서 감상하고 구매까지 할 수 있는 ‘아티스토어’, 아티스트 간 필요한 정보를 나누고 콜라보작업을 제안하는 창작발전소 ‘아트콜라보’, 다양한 문화행사를 한눈에 볼 수 있고 예매까지 손쉽게 가능한 ‘문화행사’, 원하는 문화현장과 맞춤형 일자리를 바로 검색 가능한 ‘문화일자리’, 칼럼, 비평, 기사 등의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문화 이슈’가 그것이다.

디어 마이 광주는 지난해 4월 시범모델을 구축했으며 5월 임시 운영, 12월 자평 등의 과정을 거쳤다. 인터



광주문화재단이 최근 오픈한 커뮤니티 중심의 플랫폼 ‘디어 마이 광주’ 이미지.

넷 주소창에 ‘dmgj.kr’을 입력하면 시민 누구나 회원으로 가입해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아티스토어’에는 시각예술가 유지원, 서양화가 임희정, 구성조각가 조솔, 한국화가 명철, 사진가 이세현의 간략한 정보 등이 올라와 있다. 특히 ‘아티스트’란에 꾸준히 작품 정보를 업로드 하면 자신만의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진다는 장점이 있다.

‘아티스토어’에는 김다인의 ‘Everyday’ (35만원), 백상욱의 ‘찰나刹那’ (50만원), 아란의 ‘모내기’ (25만원) 등의 작품이 소개돼 있다. 문화작가들의 작품집도 구매할 수 있다. 현재 윤연우의 ‘역할극’ (1만800원), 공선옥 외 ‘정거장, 움직이는 기차’ (1만5000원) 등의 책도 업로드 돼 있다.

공동작업 제안부터 물품·공간·공모까지 예술활동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교환되는 ‘아트 콜라보’에는 퓨전 국악 그룹이 함께 조인해 공연할 합하나 서양악기 다루는 전공자들 찾는다라는 정보가 올라와 있다.

이처럼 디어 마이 광주는 현장과 소통하고 현장 이야기를 바탕으로 예술인과 문화, 시민을 연결한다는 특징이 있다. 향후 문화재단에서는 다양한 이벤트와 오프라인 홍보관 운영 등을 통해 플랫폼을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문화재단은 이외에도 올해 광주형 문화메세나 운동

을 비롯해 창작지원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는 문화메세나 예산이 7억 원으로 증액돼 ‘문화동행’이라는 이름으로 광주예술인들과 함께 한다는 복안이다. 또한 재단은 뮤지컬 ‘광주’의 11월 초 뉴욕 쇼케이스를 비롯해 광주, 서울 등 20회 이상의 공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역의 또 다른 문화플랫폼인 (주)문화토리(대표 박지현)의 ‘플레이광주’는 지난해 9월 오픈했다. 플레이광주는 광주의 공연과 전시 정보를 공유하는 플랫폼으로 이들은 앞서 제주지역의 문화정보를 담은 플랫폼인 ‘플레이제주’를 선보여 화제가 된 바 있다.

플레이광주에는 문화 뉴스를 비롯해 콘서트, 뮤지컬, 연극, 클래식, 오페라, 국악, 무용 외에도 전시와 행사, 축제 등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다.

(주)문화토리가 추천하는 공연을 알려주는 ‘플레이광주 추천!’과 예술인과 인기있는 장소를 소개하는 ‘오늘의 아티스트의 정보를 볼 수 있다. 현재 ‘미안마 운동 후원 릴레이 콘서트와 사진전’ (26일, 전일빌딩 245), ‘박재홍 피아노리사이틀’ (3월25일, 광주문화회관 소극장), ‘광주시립교향악단 실내악 시리즈 I-Andante Cantabile’ (3월 24일,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 등의 정보가 올라와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문화재단 사무처장 김홍석 내정

광주문화재단 신입 사무처장에 김홍석(59·사진) 씨가 내정됐다.

김 내정자는 지난해 17일 13명이 응시한 채용 공모에 서류 및 면접시험을 거쳐 최고득점을 기록했다. 문화재단 내부 인사가 사무처장에 내정된 것은 처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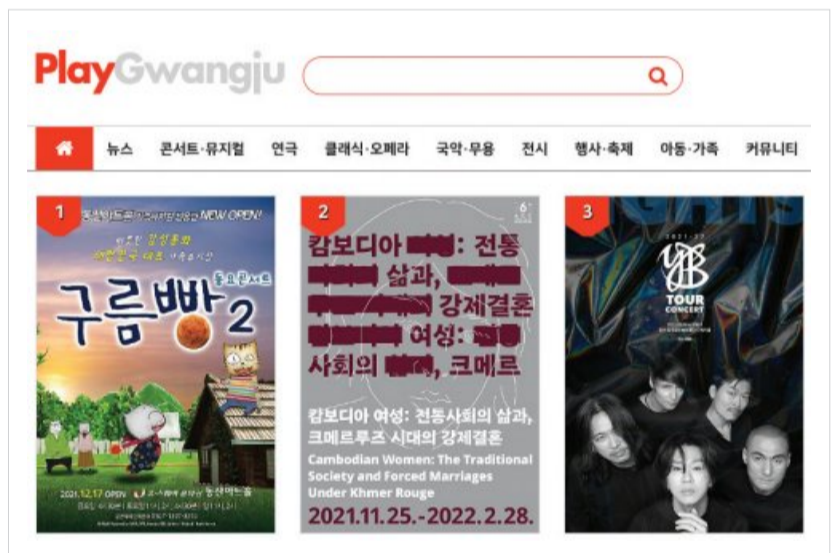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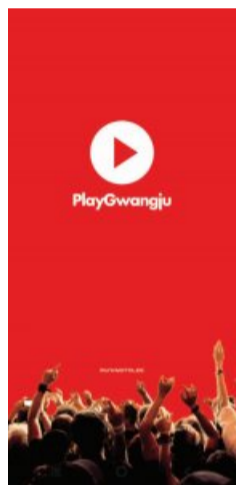
김 내정자는 전남대 음악과, 단국대 대학원 음악과 석사를 거쳐 독일 뒤셀도르프 국립음대(Diplom/2년)를 졸업했으며 서남대학교 음악학과 교수, 정음성국제음악제 조직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2011년 광주문화재단에 입사해 문화사업실장, 빛고을시민문화관장을 거쳐 현재 청렴감사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김 내정자는 “문화예술 분야의 다양한 현장 경험과 재단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광주의 고유한 문화원형을 소재로 한 세계적 문화콘텐츠 생산을 매개·지원하고, 광주의 전통과 미래 문화를 이끌어가는 데에 일조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 내정자는 결격사유 조항 등을 거쳐 3월 둘째 주부터 임기 3년의 사무처장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플레이광주’는 광주의 공연과 전시 정보를 공유하는 플랫폼이다.

‘실수라 하기엔 너무 아픈 말들’

오선덕 시인, 첫 시집 ‘만약이라는 말’ 펴내



“실수라 하기엔 너무 아픈 말이 있다. 가시처럼 박혀 있는 상처받은 말들과 상처 준 말들 다시 주위담을 수 없는 상처 입은 말들은 긴 세월 지나도 통증으로 남아 있다. 잘못 쏟아진 말들로 헐거워진 사이언 나와 너만 있고 우리는 없었다.”

2015년 ‘시와사람’을 통해 등단한 장성 출신 오선덕 시인이 첫 시집 ‘만약이라는 말’ (겉은 사람)을 펴냈다. 사람은 누구나 하고 싶은 말과 막상 하게 되는 말 사이에 갈등을 한다. 내면의 소리와 현실의 세계라는 간극은 언제나 말하기를 주저하게 만든다. 이번 시집에서 시인은 말의 불안전성, 진실의 괴리 등에 천착한다. 특히 권력 관계와 지위 관계가 분명할 때 말은 지극히 형식적이며 상대가 원하는 형식과 내용으로 채워지기 마련이다.

“가슴이 알고 있는 길 쪽 따라가면 끝자락에서 있는 너, 바라보는 마음 한쪽 뻗죽해진// 말하지 못하는 귀와 듣지 못하는 입, 우리는 익숙한 물음과 대답을 꿈꾸지만 너무 먼 마천루 위에 세워진 입과 귀의 가설들// 어둠이 제 키만큼 그림자를 뿌리며 달려온다 돌아가야 할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길”

위 시 ‘내비게이션’은 내비게이션이 지시하는 대로 반응하는 수동적인 상황을 보여준다. 말할 수도 들을 수도 없이 그저 일방적 요구에 반응해야 하는 존재를 그리고 있다. 소통과 교감은 그저 ‘마천루에 세워진 입과 귀의 가설들’에 지나지 않는다.

신덕훈 문학평론가는 ‘내비게이션이 지시와 순응을 요구하듯 우리네 삶도 교류가 아닌 지시와 복종에 익숙해져 있다는 것’이라며 “이런 존재로서의 삶은 더 이상 ‘익숙한 물음과 대답을’ 꿈 꿀 수 없게 만든다”고 평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일상의 기록...팝아트 세계로 초대

정광필 초대전, 3월4일까지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

다양한 팝아트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광주 양림동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남구 제중로47번길 22)이 올해 두번째 기획전으로 정광필 작가 초대전을 갖는다. ‘Art for Record-일기장’을 주제로 오는 3월4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전시에서 정 작가는 개성이 담긴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조선훈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산호세 아트 아카데미를 수료한 정 작가는 사진작가로 활동했으며 대한민국 캐릭터 산업을 이끌었던 오콘, 호동커뮤 나케이션과 그린나라 등에서 일러스트레이터로 근무했다. 또 뉴욕 기업(SMILEY LICENCING COP)에서 애니메이션 일러스트레이터로 일하는 등 다채로운 경력을 갖고 있다.

전시작들은 팝아트와 상업 일러스트 경계에서 활동해온 작가의 시선을 엿볼 수 있는 것들로 팬데믹 상황 속에서 매일 매일의 삶이 담긴 일기를 기록하듯 제작한 작품들이다.

작가는 관람객들이 작품에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팝아트와 일러스트 느낌이 강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전시작은 프랑스 조각가 카미유 클로델의 모습을 자신만의 시각으로 새롭게 해석하기도 하는 등 익숙한 이미지를 차용하기도 했으며 다채로운 색감과 자유분방한 터치로 경쾌한 느낌을 자아내는 작품들도 눈길을 끈다.

이번 작업은 작가가 뉴욕에서 많이 접했던 그래



‘무제’

피티의 영향이 높아졌으며 사진작가로 활동한 이력이 있어 카메라로 본 ‘시각’적 느낌도 함께 담았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이수지 작가의 그림책 ‘여름이 온다’와 최덕규 작가의 그림책 ‘커다란 손’이 세계적 권위의 볼로냐 라가치상을 나란히 수상했다.

23일 출판계에 따르면 ‘여름이 온다’ (비룡소)는 픽션 부문, ‘커다란 손’ (윤예디션)은 논픽션 부문에서 ‘스페셜 멘션’ (우수상)으로 각각 선정됐다. 이 작가는 지난해에도 중국 작가 차오원쉬엔의 글에 그림을 그린 ‘우로마’ (책읽는곰)로 픽션 부문에서 수상한 바 있다.

볼로냐 라가치상은 매년 3월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볼로냐 아동도서전에서 픽션, 논픽션, 코믹스, 시 분야로 나뉘어 수여하는 상으로 창의성과 예술성 등이 우수한 작품에 주어진다. ‘그림책의 노벨상’으로 불리기도 한다.

지난해 출간된 ‘여름이 온다’는 비발디 ‘사계’ 중 ‘여름’에 모티브를 둔 그림책으로 다양한 기법이 응집된 작품이다.

최덕규 작가의 ‘커다란 손’은 아버지의 돌봄으로 무럭무럭 자란 아들이 어른이 되어 돌아가는 아버지를 돌보는 이야기를 담은 그림책이다. 작가는 자전적인 이야기를 독립출판 윤예디션에서 2020년 출간했으며 이 책은 어른을 울리는 그림책으로 입소문을 타며 사랑받았다.

서울대에서 서양화를 전공한 최 작가는 그림책 ‘나는 괴물이다’, ‘헤엄치는 집’ 등을 펴냈으며 ‘여름이네 병아리 부화일기’로 창비 ‘좋은 어린이책’ 기획부문 우수상을 받았다.

볼로냐 라가치상 시상과 안테르센상 수상자 발표는 3월 21일 개막하는 볼로냐 아동 도서전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한국문화예술위 ‘청년예술TF’ 운영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박중관·이하 예술위)는 3개월간 청년예술TF를 운영한다.

청년예술TF는 청년예술인의 문화예술 의사결정 참여 확대와 미래예술 의제의 초석을 쌓기 위해 출범했다. 지난해 구성된 ‘예술위 소위원회 청년위원회 모임’을 전신으로 하며 현재 현장소통소위원회, 정책혁신소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청년 위원들이 주축이다.

청년예술TF는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지난해 12월 온라인 상에서 진행된 ‘제2회 아르코 대토론회’에서 ‘예술현장 청년 주류화 전략’ 세션을 기획 및 진행해 의제들에 대해 대화를 진행한 바 있다.

청년예술TF는 예술위 내의 의사결정 기구인 위원회와 소위원회에 청년예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진흥법 개정과 예술위 소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등에 대한 공론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청년예술가생애지원 사업에 ‘청년참여예산제’ (가칭) 도입을 제안할 예정이다.

한편 청년예술TF 성과와 과제는 4월 중 개최 예정인 라운드테이블과 TF활동이 끝나는 2022년 5월 제작될 백서를 통해 공유될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